

광주 스카이라인 고층·초고층 건축물 ‘우후죽순’

농성동 상록회관 35층·쌍암동 29층 주상복합 허가 일조권·조망권 피해 논란 ... 건축물 높이 기준 시급

광주 도심 외곽에 대한 건축물 높이 기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심은 물론 외곽에도 20층이 넘는 아파트, 주상복합 등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피해, 과도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예산 낭비 등의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상록회관이 들어서 있는 광주시 서구 농성동 260-7번지 일원에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계획이 최근 광주시 제8회 건축위원

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당초 최고 39층 2개동(122세대)에서 심의를 거치면서 4개 층이 낮아졌으나 이 일대 30층 이상 규모의 건축물이 없다는 점에서 스카이라인에 큰 변화를 줄 전망이다. 부지면적이 6598㎡에 불과하지만, 건폐율 53.96%, 용적률 398.79%를 적용받아 3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됐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최소 부지가 1만㎡로 제한돼 있어 주상복합을 통해 고층 건축물을 신축한 것이다.

주상복합건축물이 들어설 부지 바로 뒤에서는 지상 16층~29층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가 한창이며, 입주예정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모(여·45)씨는 “무등산 조망과 앞에 있는 공원을 보고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다”며 “여건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다른 아파트를 알아봤을 것”이라고 분개했다.

지난 7월 열린 제7회 건축위원회에서는 대지면적 9783.1㎡의 광주시 광산구 쌍암동 688-2번지 외 6필지에 29층 5개동(294세대)의 주상복합 건축물 역시 조건부 의 결했다. 이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폐율은 79.86%, 용적률은 615.2%에 달했다.

이처럼 도심 내외에 1만㎡ 이상 부지는 고층 아파트, 1만㎡ 미만 부지에는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광주지역의 스카이라인이 급변하고 있으나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개별 건축물이나 단지에 대한 문제점만 살펴볼 뿐 광주 전체나 일정한 구역에 놓고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대학 한 교수는 “광주의 스카이라인이 무계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층·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기준만이 아니라 도시전반과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결정해야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공동브랜드 제품 첫 수출 현성오토텍 만능조리기 대만에

광주시가 지역 가전산업을 홍보하기 위해 추진한 공동브랜드 제품이 첫 수출된다. 광주시는 16일 “광주 공동브랜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주)현성오토텍이 대만 기업과 20억원 규모의 만능조리기 2000대를 판매하는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현성오토텍은 만능조리기 ‘오세프’ 개발을 시작하고, 제품 디자인 개발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국외 인증 등 맞춤형 지원을 받아 최종 제품을 완성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대기업 위주의 지역 가전산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주 가전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브랜드 개발에 착수해 올해 4월 공동브랜드 ‘CITY OF PEACE’를 만들었다.

또 지난 2월에는 처음으로 (주)쌍진산업과 중흥건설간 50억원 규모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많은 기업의 관심을 모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편대비행 펼치는 ‘블랙이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 2017’ 언론공개행사에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편대비행을 펼치고 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ADEX 2017’은 17일 개막해 22일까지 계속된다. /연합뉴스

전남도, 낙후도서 개발 제도개선 나선다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일반인 여객선 운임 지원제 도입

전남도가 낙후된 섬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선다. 대표적으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과 여객선 운임 지원제도 도입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서개발촉진법은 섬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해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법은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가 개통된 지 10년이 된 섬과 10인 미만 사는

이에 따라 전남도는 섬 주민의 편익과 개발을 위해 지난해부터 ‘연륙 후 10년 경과, 10인 미만’ 낙후도서 개발을 지원하고, 국가 기념일로 ‘섬의 날’을 제정하기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윤영일 국회의원은 지난해 10월 다리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도 개발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고, 박순자 국회의원은 10인 미만 유인 도서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개정법안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개정법안은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이다. 전남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만 큼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섬 여객선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도입도 함께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섬 관광객 증가로 관광산업 발전과 여객선사의 수익 증대에 따른 연안 해상 운송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희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영도 수호의 전진기지이자 국가 자산인 섬의 가치를 높이고, 섬 주민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섬 개발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서개발 촉진법이 반드시 개정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제도가 도입될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고건 전 총리에서 이낙연 총리까지’ 전남도 거쳐 간 공무원 저서 전시회

전남행정동우회, 24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고건 전 총리에서 이낙연 총리까지’ 전남도를 거쳐 간 공무원들의 저서가 한자리에서 전시된다.

전남도 퇴직공무원 모임인 전남지방행정동우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옛 광주 동구청)에서 ‘전남도청 퇴직자 저서 전시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전시 참가는 전남도를 거쳐 간 전·현직 공직자 70명으로, 이들이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출간한 저서 138권을 한 곳에 모았다.

업무 과정에서 연구한 향토사를 비롯해 농업, 문화관광, 지역개발, 공직 윤리, 리더십 등 분야별 전문서적이 60권으로 가장 많다. 또 자서전 36권, 시·소설·수필 등 문학서적 34권, 여행기 5권, 기타 3권 등이다.

고장형태 전 전남지사가 1964년 저서 ‘지방재정법 해설’이 가장 오래됐다.

퇴직 공무원 고성호씨가 지난봄 발간한 자서전 ‘산 같은 꿈, 강 같은 삶’과 심심전 전 영광부군수가 여름에 퍼



낸 ‘오현 한시집’은 가장 최근 나온 책이다. 윤장현 광주시장 부친인 윤지혁(93) 전 나주시장은 생전 인물 가운데 최고령자로 2003년 발간한 자서전 ‘인생’을 선보인다.

이낙연 총리, 고건 전 총리, 정시채 전 농림부 장관, 최인기 전 행정부 장관, 전석홍·문창수·조규하·허경만 전 전남지사, 강운태 전 광주시장, 박준영·이개호·정인화 의원 등 전남도를 거쳐 간 명사들이 흔쾌히 책을 내놓았다.

박재순 전남지방행정동우회장은 “소중한 공직 경험을 책으로 묶은 선배 공직자들의 공을 되새기려 전시회를 마련했다”며 “전시회를 계기로 지역 전·현직 공무원의 의미 있는 집필 활동을 지원하는 캠페인도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북구 주민 29.6% “북구,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문상필 광주시의원 1394명 설문 조사

광주시 북구지역 주민 3명 중 1명은 “북구를 문화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광주시의회 문상필(민·북구3)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구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지난 6월13일부터 100일간 1394명의 주민을 직접 만나 진행한 정책설문 조사를 분석해보니,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의원은 “설문결과 북구 주민은 문화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문화시설 확충, 5.18과 무등산·가사문화관 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북구에 대한 대표 이미지로 국립 5·18민주묘지(35.87%)와 무등산(30.9%)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지역발전 방향으로 문화도시(29.6%), 복지도시(19.0%), 생태환경도시(18.1%) 등을 들었으며, 현안으로는 문화시설 확충(29.1%), 기업 유

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28.8%) 등을 꼽았다.

불편한 문제로 문화시설 부족(36.3%)·일자리 애로(22.9%)·출퇴근 교통혼잡(18.5%)·복지시설 부족(13.6%) 등을 들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회적기업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33.3%)과 무등산과 5.18 사적지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28.7%) 등을 꼽았다.

특히 무등산 활성화를 위해 무등산 주변 힐링 휴식공간(46.5%) 확충과 5.18 국립묘지와 가사문화관을 연결하는 관광벨트(36.0%) 조성 등을 제시했다.

복지현안으로 아동·청소년 복지(32.7%)와 서민복지(32.1%)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리 청결(36.5%), 공원관리 부족(22.7%), 쓰레기 재활용(16.3%) 등을 환경 문제로 들었다.

한편 문 의원은 북구에 사는 만 19세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으며 성별은 남성(48.3%), 여성(51.7%)였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하는 당노콘서트

나의 인생 첫 당노학교

2017년 10월 28일(토) 오후 2시~6시 태영21병원(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주최 · 당노와건강 환우회

강사 · 가슴 뛰는 내과 유중현원장 | 상무역사거리 서광주로 방향 보라안과병원 문귀형원장 | 상무지구 롯데마트 건너편 광주21세기병원 오선종원장 | 수완지구 관절척추병원 인 하루 치과 이광훈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태영 21 병원 양태영원장 |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삼성서울병원 김재현교수 | 현 당노병학회 총무이사 내분비내과

공연 · 클래식 콘서트 퀸즈퀸텟

예약 · 010-5155-0075 문자로 성함을 남겨주세요. 예약필수

상담전화 | 진료 및 검진예약 (062)362-0075

태영 21 병원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